

國際化時代의 東西經濟關係

金 潤 煥*

<目 次>

- I. 序—國際化와 東西經濟交流의 進展
- II. 東西經濟關係의 推移와 展望
- III. 東西經濟關係의 規定要因
- IV. 韓國의 對應과 南北經濟關係
- V. 結—東西經濟關係에 대한 期待와 限界

I. 序—國際化와 東西經濟交流의 進展

經濟의 國際化는 第2次大戰後 各國經濟의 發展・擴大가 貿易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의존하여 國際經濟構造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國際化는 각 분야에서 量的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質의으로도 발전하여 그 양상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① 財貨와 서비스의 貿易을 통한 國際分業의 진전과 변화가 각국내의 産業調整을 일으키고 그것이 원활치 못할 때 무역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이리하여 한 나라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와의 관련이 강화되는데 이것은 戰後 IMF・GATT 體制下의 貿易自由化와 國際通貨의 安定化에 의한 世界經濟의 繁榮으로 촉진되었다. ② 商品만이 아니라 資本의 國際化도 진전되었다. 直接投資의 擴大, 間接投資의 增大, 借款 등에 의한 資本의 輸出入 擴大가 資本의 국제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國際金融去來의 비중이 큰 나라의 總通貨가 國際通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通貨의 國際化가 일어났다. 이러한 金融通貨面의 국제화 진전은 國內金融制度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國際資本移動의 擴大는 戰後西歐復興을 위한 미국의 資本援助와 投資, 多國籍企業의 積極인 海外投資, 開途國의 經濟開發을 위한 外資導入政策, 각국의 資本自由化政策 등으로 이루어졌다. ③ 國內市場의 狹少化, 資源의

* 檀國大學校

開發輸入, 各國間の 貿易摩擦, 低賃金指向의 海外生産 등에 의한 企業活動의 國際化가 진전되고 그 內容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리하여 多國籍企業의 등장, 國內市場의 國際化, 外國企業進出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企業組織의 國際化, 人材의 國際化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등 經營管理體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④ 交通・通信手段의 進歩는 국제간의 情報, 人的交流를 활발하게 하여 同質化시켜감으로써 情報・文化의 國際化를 촉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異民族이나 文化面을 包含한 다양한 相互理解가 진전되는데 이것이 진전되지 않은 채 經濟面만의 國際化가 진전된다면 經濟的 摩擦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經濟와 文化의 국제화가 균형된 형태로 國際經濟交流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전후 世界經濟의 發展은 先進國의 完全雇傭 達成을 위한 적극적인 經濟成長政策, IMF・GATT 體制下의 貿易自由化, 耐久消費財를 중심으로 한 消費需要增大 등인데 무엇보다도 成長의 原動力이 된 것은 技術革新의 진전이다. 선진국의 技術革新에 의한 石油化學, 機械, 電子, 原子力, 自動化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資本集約의 産業構造의 高度化, 情報産業, 시스템産業 등 高附加價值産業의 발달은 生産性向上에 의한 國民經濟規模 擴大를 결과했고 이것은 水平貿易의 進展에 의한 國家間的 經濟的 相互依存關係, 즉 經濟的 國際化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

世界經濟規模擴大에 의한 相互依存關係가 높아가는 가운데 世界經濟가 多元化되어 갔다. 전후 世界經濟는 資本主義經濟圈, 社會主義經濟圈으로 양분되었는데 점차 각 내부에서 多元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資本主義圈에서는 美國 中心의 經濟가 美國, 西歐, 日本 등으로 多元化되고 社會主義經濟圈에서는 中共이 이탈하여 中共, 소・동구 등으로 분화되었다. 開發途上國에서도 產油國과 非產油國, 新興中進工業國과 後發工業國으로 분화되고 있다. 世界經濟는 1950~1960年代에는 相互依存關係가 진전되는 가운데 순조로운 발전을 하였고, 70年代에는 Bretton Woods 體制的 崩壞, 石油波動, Stagflation, 新技術開發의 停滯 등으로 世界經濟는 混亂과 摸索의 과정으로 들어갔으며, 80年代 내지 90年代에는 이러한 混亂에서 벗어나 새로운 秩序를 모색하는 調整期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競爭과 協調, 公正과 隔差는 正에 의한 새로운 질서속에서 각국의 국제적 공헌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國際民主主義의 定着과 新國際經濟秩序(NIEO)가 확립된다면 그 이후에는 世界經濟가 국제간에 安定的인 相互依存關係를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世界經濟속에서 오늘날 先進國間, 先後進國間, 後進國間, 그리고 體制를 달리하는 資本主義陣營과 共產主義陣營間的 經濟交流 즉, 東西經濟關係가 확대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

東西經濟關係란 政治・經濟・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資本主義世界體制와 共產主義世界體制 사이의 經濟關係를 말한다. 東西經濟關係는 ① 冷戰期(戰後~50年代 中葉)에는 東西對立으로 東西政治關係가 東西經濟關係를 크게 좌우했다. 共產主義陣營은 COMECON을 조직하여 自求努力을 도모했고, 資本主義陣營은 1950年の 對共產圈統制委員會를 파리에 설치하여 그 下部機構로서 COCOM, 1952에 CHINCOM을 두어 소・동구 및 中共에 대한 經濟封鎖 및 戰略物資禁輸를 강화했다. 그리고 美國은 51年 相互防衛援助統制法을 발효하여 共產圈에 禁輸品目을 수출한 나라에 대해 軍事・經濟援助中斷措置를 취했다. 이 시기에는 美蘇의 相互敵對政策으로 유럽이 東西兩陣營으로 분단되어 각각 經濟的, 政治的 blocker가 형성됨으로써 東西經濟關係가 악화되고 東西貿易이 급속히 저하되었다. ② 平和共存期(50年代後半~60年代中葉以後)에는 스탈린死亡과 스탈린批判으로 平和共存 可能性에 대한 認識이 높아졌고 54년에 第1次 COCOM制限緩和, 57년에 英國의 對中國輸出制限緩和, 58年の 第2次 COCOM制限緩和가 이루어짐에 따라 東西緊張緩和와 東西貿易이 활발해졌다. 다시 말하면 후르시초프 政權의 탄생으로 美國을 제외한 西方諸國의 對共產圈貿易統制가 완화됨과 아울러 COMECON의 域內貿易發展의 限界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東西貿易擴大의 자극이 되었다. ③ 緊張緩和期(69年~現在)에는 美・蘇兩大國間에 緊張緩和政策이 채택됐고(69年) 더우기 닉슨의 訪中으로 美・蘇關係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東西經濟交流가 貿易, 資本, 産業協力面에서 확대 심화되었다. 즉 60年代에 소・동구는 경제정체를 극복키 위하여 經濟效率化를 주내용으로 하는 經濟改革을 실시했고 이것은 資本主義陣營으로부터 資本財와 技術을 수입하기 위해 對外開放을 촉진시켰다. 이어서 72년에는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서방측에 의한 直接投資로 産業近代化와 技術向上을 도모하였다. 특히 최근의 鄧小平과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의한 經濟改革, 對外開放, 民主化의 촉진은 東西經濟關係를 급속히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60年代까지는 國際政治分野에서 經濟問題가 副次的 比重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70年代의 東西緊張緩和가 진전됨에 따라 經濟紛爭과 經濟摩擦은 국제정치상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經濟의 政治化가 진전되었다. 經濟의 政治化는 첫째, 先進國頂上會談, 東西首腦會談과 같이 高位의 政治水準에서 논의되어 高次元化(high politics)되어 갔다. 이것은 紛爭, 摩擦을 회피하고 協力和 協調위에서 世界經濟의 秩序化 또는 일종의 國際管理化를 진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經濟의 政治化는 국가간의 마찰이나 긴장인데 이것은 국내문제의 반영이기도 하다. 가령 성장둔화에 의한 大量失業 등 國內的 不滿은 정치에 반영되며 이러한 國內摩擦은 國際摩

擦로 전환된다. 반대로 外國壓力問題가 국내문제로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 경우 對外政策을 우선하여 國際問題를 內部化할 것인지, 國內政策을 우선하여 國內問題를 外部化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對內管理和 對外管理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interstestic politics). 셋째, 經濟問題가 經濟問題 아닌 安全保障問題와 관련되어 交渉이나 論議의 對象이 되는 경우이다(linkage politics). 이것은 특히 Nixon 이후의 新冷戰體制下的 東西關係重視政策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戰略이 도리어 自由陣營內部的 對立을 자아내기도 한다.¹⁾

經濟의 政治化가 진전되고는 있지만 東西政治關係가 冷却되고 軍備擴張競爭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는 東西經濟交流가 확대될 수 없다. 따라서 政治關係 安定化가 東西經濟交流擴大의 크나큰 변수가 되고 있다. 어쨌든 1960年代 後半부터 70年代 前半에 걸친 東西貿易增大와 그것을 배경으로 한 東西關係緊密化는 共產圈諸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資本主義先進國과의 經濟關係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共產圈諸國으로 하여금 西方側과 平和共存 등을 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共產圈諸國은 長期經濟計劃立案段階에서부터 西方先進工業國家와의 經濟交流擴大를 고려하고 있어 東西經濟關係形成은 필연적으로 長期的 展望에 입각한 經濟協力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共產圈이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表 1>과 같이 GNP面에서 약 4分の 1, 貿易面에서 약 10分の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산국 상호간의 무역을 제외하면 동서무역의 비중은 5% 내외이다.

공산권제국의 對西方交易은 단기적으로는 국내경제사정, 유가등락, 대서방차입능력 등에 의한 외환사정, 세계시장, 경기변동, 國際政治狀況 등에 의해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산권의 對外開放趨勢에 따라 그 規模 및 世界貿易上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表 1> 世界經濟에서 共產圈의 比重 (單位: 달러, %)

	GNP(1985)	輸出(1986)	輸入(1986)
世 界(A)	14兆	2兆 1,100億	2兆 1,100億
共 產 圈(B)	3兆 4,700兆	2,300億	2,250億
B/A	24.8%	9.5%(5%)	10.7%(4%)

資料: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6.

GATT, *International Trade in 1986 and Current Prospects*, 1987, 産業研究院.

註: ()안은 共產圈의 對先進國 輸出入比重임.

1) Bergsten, F., R. Keohame and J. Nyc(1975), p.19. 荒川弘(1983), pp.99~101.

2) 産業研究院(1987), p.1.

Ⅱ. 東西經濟關係의 推移와 展望

東西經濟交流는 일반적으로 政府間 長期協定에 의한 貿易擴大와 더불어 科學技術, 共同프로젝트參加, 經營・資金・去來共同負擔 등 다방면에 걸친 效率의인 經濟協力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理念을 달리하는 經濟體制間에 國際分業이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東西經濟交流의 擴大要因으로 첫째, 美・蘇兩大國間의 平和共存과 緊張緩和政策의 채택 및 美・中間의 政治關係改善, 둘째, 西方先進國의 景氣鈍化, 세째, 經濟生活의 國際化, 네째, 東西兩經濟體制的 經濟的 補完關係 등을 들 수 있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東西貿易의 중요성은 70년대를 전후해서 증대되고 있는데 東西貿易의 商品構造를 살펴보면 西方側으로부터 機械・設備 등의 工業製品을 약 80% 수입하고 共產側이 食料品・原料 등의 1次產品을 약 5% 수출하는, 이른바 垂直的 貿易構造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構造하에서 共產圈諸國은 貿易收支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 工業製品의 對西方輸出能力提高, 食料品・原料 등 一次產品의 輸出擴大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자해소 과제는 工業製品의 市場競爭力이 약하고 資源과 外貨가 부족한 東歐諸國에 있어서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東西產業協力은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共產圈諸國이 도모한 東西貿易擴大의 한 방법이다. 東西產業協力이란 尖端技術을 가진 西歐先進工業國이 共產圈諸國의 工業生産이나 資源開發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 形態에는 첫째, 生産分野方式 또는 compensation 去來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現物로 지불을 하는 決濟方式이 있다. 西方側은 技術援助, 라이선스供與, 플랜트供給을 하고 共產圈側은 代金の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여받은 라이선스나 플랜트로 생산한 제품으로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

〈表 2〉 86年 共產圈諸國總額中的 西方諸國額比重(%)

		輸 出	輸 入
蘇	聯	33.2	33.1
中	共	90.7	91.0
한	리	39.9	44.3
체	코	22.4	20.3
유	고	55.7	71.4
東	獨	35.0	32.8

資料：三星經濟研究所, 『共產圈諸國의 經濟現況』, 1988.

며, 이 경우 西方側은 共產國側에 대해 長期借款을 공여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방식으로 共產國側은 外貨支出을 절약하고 서방측의 노우하우를 이용하여 良質의 工業製品을 생산하며 西方側도 장기적이고 안정된 市場을 확보하게 된다. 機械工業이나 化學工業分野에서의 協力이 가장 많고 東歐側에서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에서 西方側에서는 西獨과 프랑스가 이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밖의 産業協力形態로서 둘째, 製品의 共同生産과 販賣, 셋째, 部品生産의 專門化, 넷째, 第3國에서의 合作企業, 다섯째, 共產圈國家內에서의 合作企業을 들 수 있으며, 合作企業이 産業協力の 가장 고도로 발전된 형태다. 合作企業設立의 目的은 西方側으로부터 資金調達, 尖端技術, 經營技術, 販路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共產圈諸國中에서 合作企業設立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다. 여섯째, 觀光事業協力を 들 수 있다. 어쨌든 이들 産業協力は 西方側이 共產國側에 長期借款을 공여하고, 共產國側은 西方側 協力參加企業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안정된 去來條件을 제공하는 것이 통례이다. 현재 産業協력이 東西貿易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미미하나 恒常의 外貨不足, 通貨交換性缺如로 고민하는 共產圈諸國과 市場開拓에 골몰하는 西方側 雙方面에 대해 東西貿易의 擴大要素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東西資本協力は 國際金融이나 銀行業務에 있어서 東西間의 協力を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共產圈銀行의 西方側金融市場에로의 進出, 東西合作銀行의 設立 등의 형태를 띤다. 이것은 産業協力の 實質的 促進, 共產國側 貿易赤字經濟에 필요한 外貨需要增大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東西資本協力は 外貨가 부족한 共產圈諸國의 外貨需要增大에 호응하여 전개된 東西經濟交流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70年代 前半 東西貿易의 급속한 확대는 東西資本交流의 전개를 촉진하였다. 東西資本交流는 西方側諸國 政府차원의 輸出信用과 民間銀行 차관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共產圈諸國의 對西歐先進國債務額이 크게 累増되었는데 이러한 債務增大는 共產圈諸國의 對西方側貿易赤字의 지불이나 交叉決済의 비중을 높혀 東西貿易의 擴大均衡化에 기여하고 있다.

소련, 中國의 最大貿易相對國은 西獨과 日本인데 공산측은 철강, 기계 등 重工業製品을 수입하고 原燃料를 輸出할 수 있어 유리하고 西方側은 重要資源不足을 극복하고 輸出市場開拓을 할 수 있어 이득을 볼 수 있다. 原燃料가 결핍된 東歐諸國은 특히 入超傾向이 지속되어 經常收支赤字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東西經濟交流는 시베리아 開發協力과의 관련속에서도 전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森林開發, 港灣, 天然가스, 原料 등의 개발·협력이다.

1980年代 前半의 東西經濟關係는 東西政治關係의 악화를 배경으로 부진상태에 있었다. 79年 소련軍의 아프가니스탄 侵攻, 美國의 80年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코트, 81年 취임한 레이건大統領에 의한 힘의 정책 추진 등이 바로 정치적 악화요인이다. 이리하여 西方側의 經濟制裁, 특히 技術移轉抑止策, 그밖에 國際石油價格下落, 달러貨價值下落 등으로 東西經濟關係의 장래는 비관적으로 전망되었다. 1985年 고르바초프 政權이 등장한 후 東西間에 대화가 부활되고 세차레의 美・蘇頂上會談을 통해 兩大國의 급속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양국사이에는 軍縮, 地域紛爭, 人權, 2國間 關係 등의 제문제에 대한 對話와 交渉이 추진되고 1987年 12月에는 中距離核戰力(INF)을 3년내에 전폐하는 조약이 성립되었다. 이리하여 東西緊張緩和가 재구축됨으로써 東西經濟關係의 政治的 抑制要因은 제거되었다. 이러한 政治關係의 先導로 東西經濟關係는 새로운 轉換期를 맞아 經濟, 貿易, 科學技術, 文化 등 各分野의 協力과 交流의 증대가 적극적으로 도모되기에 이르렀다. 蘇・東歐는 經濟改革의 추진과 관련해서 西方側으로부터 계속 機械・設備나 食糧 輸入이 필요하고 自由陣營側에서 볼 때에는 美國의 經濟的 困難, 西方側內部의 經濟的 摩擦의 증가가 東西經濟關係의 緩和와 개선을 지향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다.

Ⅲ. 東西經濟關係의 規定要因

東西經濟關係의 主軸을 이루는 東西貿易의 概念과 意義 및 最近動向을 살피고, 나아가 그 規定要因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廣義의 東西貿易은 社會主義諸國과 資本主義諸國의 貿易이지만 UN이나 OECD 또는 西方側의 關聯資料나 統計에서는 유고슬라비아를 西方先進國중에 쿠바를 開途國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포함시키는가 포함시키지 않는가에 따라 東西貿易全體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진다. 廣義의 東西貿易에 있어서 약 3分の 2는 西方先進國과 약 3分の 1은 開途國과 共產圈諸國과의 무역이다. 공산권과 開途國과의 상대적인 무역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선진제국과의 그것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 狹義의 東西貿易은 소・동구제국과 OECD先進諸國과의 무역이며 이것이 본래의 東西貿易이다. 여기에서도 유고슬라비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동구제국의 對外貿易은 기본적으로 圈內貿易(COMECON 地域內)이 主流이지만, 中國의 對外貿易은 대부분이 西方先進國과 開途國과의 貿易이다. 그리고 소・동구와 開途國과의 貿易은 東西貿易이라기 보다는 南北貿易의 성격을 띠고 있다.

共產圈諸國에 있어서 東西貿易의 意義는 매우 큰데 이것은 소・동구제국의 輸出

入總額에서 차지하는 西方先進國과의 무역비중이 15~35%나 된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고, 특히 輸入面에서 西歐依存도가 높다. 外延的 經濟成長에서 內包的 經濟發展으로 政策의 基本的 轉換을 도모하여 近代의 工業建設과 國民生活水準 向上을 기하려는 소·동구로서는 서방측으로부터 앞선 機械·設備나 資本을 導入하고 부족한 穀物과 食肉 및 消費物資를 수입할 필요성이 커져 東西貿易의 의의는 매우 크다. 西方先進國의 貿易總額에서 차지하는 東西貿易의 비중은 OECD 諸國 平均으로 4~5%에 지나지 않지만 연간 400~450억 달러의 西方諸國商品을 公산권제국이 수입한다는 것은 西歐企業에게는 매력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大型플랜트나 大量的 機械·設備購買에 있어서 그렇고 소련의 大量穀物輸入은 美國農民에게는 크나큰 이익으로 느껴질 것이다. 1970年代 中葉 以後 소·동구제국을 投資對象市場으로 간주하여 西方側이 활발한 融資를 한 결과 소·동구제국의 對西方債務는 증가하였다. 어쨌든 蘇·東歐諸國에의 輸出이 西方市場의 需要不足을 완화하고 製造業의 操業度 低下를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不況下의 失業率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東西貿易이 축소된다면 그것은 企業經營惡化와 직결되어 倒産과 大量失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나아가 국내의 정치·사회문제를 첨예화시킬 것이다.

東西貿易은 70年代의 東西緊張緩和를 배경으로 급속히 擴大되었다가 第1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부진상태에 빠진 후 1970年代 末부터 다시 회복되면서 東西經濟의 相互依存性을 심화시켰다. 東西貿易規模는 1970년에 약 142억 달러에서 1980년에 약 954(西歐輸出 479억달러, 西歐輸入 475억달러)억달러가 되어 年平均 20%를 상회하는 급증으로 6.7배가 되었다. 그 후 정치관계악화를 배경으로 무역규모는 85년에 837억달러로 감소되었다가 86년에는 약 856억달러로 약간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1986年 初의 石油價格下落에 의한 共產圈諸國의 對西方交易條件惡化, 달러貨價值下落에 의한 工業製品價格上昇으로 蘇·東歐諸國은 經濟改革推進을 위한 東西經濟交流擴大가 要求됨에도 불구하고 輸出擴大, 輸入抑制을 중심으로 한 긴축적인 經濟政策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公산권제국의 交易條件이 87年 後半부터 개선되는 추세이고 新진국의 對共產圈經濟關係도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公산권제국의 外貨事情 또는 金融關係에 따라 東西貿易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³⁾ 소·동구제국중 소련이 最大의 東西貿易國으로서 東西貿易去來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서구신진국중 最大東西貿易國은 西獨으로서 東西貿易去來總額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1980年代의 東西貿易不振要因은 ① 經濟的 要因보다 政治的 要因이 강화된 東西

3)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1987), 『소·동구무역조사원보(1987)』, pp. 25~77.

政治關係의 冷却化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9年 12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의 軍事介入, 폴란드의 제엄령 실시(1981.12~1983.7)에 대해 서방측이 강력히 반발했는데 기본적으로 70年代를 통해 팽창한 蘇聯 軍事力에 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西歐의 경계심이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은 對蘇·東歐高度技術移轉을 저지하고 新規融資를 중단하면서 서구제국의 동조를 요청하였다. 서구제국이 반드시 이에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美·蘇政治關係惡化가 東西貿易發展의 큰 장애가 되었다.

② 1980年代 初 특히 東歐諸國의 對西方債務는 크게 팽창하여 債務危機에 처할 정도가 되었고 이것은 返濟問題를 제기하였다. 더우기 政治關係惡化에 따라 西歐銀行의 融資姿勢는 소극적으로 되었고 이것은 당연히 東西貿易抑制要因으로 작용하였다.

③ 東西貿易의 商品構造에서 본 共產國側의 困難이다. 東西貿易의 商品構造는 共產國側에서 西方側에 原燃料, 農畜產品, 低加工度工業製品 및 輕工業製品 등을 輸出하고 西方側에서 共產國側에 機械·設備 등의 工業製品, 化學品, 高品質의 原料製品 등을 수출하고 있다. 商品構造面에서 볼 때 서방측은 先進工業國의이고 공산측은 후진국적인 특징을 지닌 垂直貿易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80年代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0年代 末에서 80年代 初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다. 공산측의 수출에서 燃料의 역할이 높아지고(소련수출총액의 70%가 石油 및 天然가스) 農畜產品의 수출이 크게 저하되는 반면 食品의 수출비중이 높아졌다. 이것은 農業不振과 國民生活向上을 반영한 것이다. 공산측의 서구시장에 대한 輸出工業製品의 競爭力이 낮다는 어려움이 있고 貿易制度改編이나 合作企業認可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④ 공산권제국이 80年代를 통해 輸出擴大와 輸入抑制이라는 調整 等を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東西貿易의 否定的 效果로 나타났다. 공산권의 수출은 경기에 좌우되는 需給動向에 좌우되고, 市場競爭力이 낮기 때문에 그다지 늘지는 않았다. 공산측은 EC가 共產圈商品輸入에 각종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한다. ⑤ 85~86년에 걸친 國際石油價格의 대폭 하락이 東西貿易發展을 크게 저해하였다고 한다. 소련은 1986年 對 OECD諸國石油輸出量이 前年對比 14.8% 증가했으나 外貨獲得率은 38%가 감소되었다 한다.

東西貿易展望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많으나 1980年代 後半期에 東西經濟關係가 기본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美·蘇의 급속한 接近이나 공산권 경제의 開放化 등이 東西貿易의 擴大要因이 될 것이고 70年代에 東西貿易을 급증시킨 東西陣營의 要因과 意志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東西貿易의 擴大要因은 ① 美·蘇 接近과 東西緊張緩和의 再定立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美·蘇頂上會談과 軍縮을 배경으로 미·소정지관계가 改善되어 東西貿易擴大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서 소련은 自力만으로는 西方水準의 工業技術을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西方의 經濟協力을 얻기 위해 對外開放政策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開放이 선행하여 政治・社會에 새로운 바람은 불려 일으켰지만 經濟改革은 부진하여 이것이 고르바초프의 정치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美國은 對蘇經濟協力擴大를 피하고자 구체적으로 科學技術協力の 擴大, 소련내 合作企業에의 積極的 參加, 產業條件에 의한 信用供與擴大, 非戰略的 技術의 對蘇移轉의 완화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C와 COMECON도 1986年 가을 6年만에 和合的 關係를 재수립하였는데 이것도 東西間의 經濟協力擴大에 유익할 것이다. ② 共產國側의 對西方 포지션(Position)의 개선이다. 소・동구제국은 輸出擴大, 輸入抑制의 調整의 措置를 취한 결과 1982年 이후 84年에 걸쳐 貿易收支黑字가 나타났는데, 1984年の 黑字는 60억달러이고 그중 소련 23億달러, 東歐 37억달러이다. 이러한 黑字로 인해 對西方債務減縮이 이루어져 公산권제국의 債務는 管理可能한 水準으로 줄어들었다 한다. 이러한 포지션 改善에 따라 公산권제국의 信用度가 높아져 1985年 以後 西方銀行의 積極적인 新規融資가 이루어졌다. 公산측의 포지션은 國際石油價格下落으로 한때 악화되었으나 다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다. ③ 國際石油價格의 相對的 安定이다. 1980年代 中葉의 國際油價下落은 公산권제국의 外貨獲得能力을 대폭 저하시켰으나, 87년에는 油價가 18달러 전후로 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됨으로써 世界最大產油國인 소련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소련은 石油輸出의 重要性和 天然가스輸出増大의 困難性을 충분히 고려하여 石油増産에 노력하는 한편 소련내에서는 石油에서 天然가스로의 轉換을 도모하고 石油使用을 재고려하며, 原子力發展에 주력하고 있다. ④ 公산권제국의 對外開放이다. 소련은 經濟改革의 一環으로 中央集權的 命令經濟시스템을 經濟原理에 입각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對外開放을 위한 貿易管理制度의 대폭개편, 外資에 의한 合作企業認可, 새로운 銀行制度 導入, 일부 개인기업 등을 인가하고 있다. 소련은 國際競爭力있는 工業完成品の 生産體制를 갖추어 工業製品의 수출로 外貨獲得을 도모하고 있지만, 서방측으로부터 先進機械・設備, 技術을 도입하고 生産體制를 정비・근대화하는 것이 先決課題라고 생각된다. ⑤ 최근(86~87)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농업생산이 2년간 계속하여 회복됨으로써 穀物收穫高가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곡물수입을 줄여 資本財를 수입할 여력을 크게 하는 것으로서 東西貿易擴大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80年代 前半의 東西貿易不振要因 특히 政治的 抑制要因은 약화되었다. 東西關係緊密化를 배경으로 서방측의 대소기술이전억제가 완화되고 公산국측은 外貨事情惡化에 대해서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西方側로서는 經濟・

産業協力, 合作企業, 金融協力 등으로 東西貿易促進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 東西經濟關係는 好轉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韓國의 對應과 南北韓經濟關係

동서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동서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한 70年代부터 우리나라의 대공산권무역은 동구권을 비롯하여 中共, 蘇聯을 대상으로 間接貿易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특히 80年代에 들어와 최근에는 共產圈諸國의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改革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될 추세에 있다.

이러한 대공산권무역은 1972年 12月 貿易去來法改正에 의해 原則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宣言을 통하여 理念과 體制를 초월한 互惠主義原則에 입각한 對共產圈門戶開放政策의 표명으로 적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第4共和國, 第5共和國의 北方政策은 共產圈諸國과의 關係改善을 통해 北韓을 고립시키고 그에 대결하겠다는 對決外交路線이었기 때문에 對共產圈經濟交流擴大의 制約條件이 되었다. 이에 대해 第6共和國의 北方政策은 북한과의 對立外交 및 孤立化政策을 지향하는 즉 共存外交路線을 취하는 7·7特別宣言(88年)을 통해 方向轉換을 함으로써 對共產圈交流擴大의 길이 트이도록 한 것이다.

7·7선언의 골자는 ① 南北同胞間의 相互交流 및 海外同胞들의 자유로운 왕래 ② 離散家族들간의 生存確認 및 相互訪問 ③ 南北間 交易 및 門戶開放 ④ 非軍事物資에 대한 友邦과의 交易容認 ⑤ 南北間의 對決外交止揚 ⑥ 北韓과 美, 日 등 友邦과의 關係改善支援 등이다.⁴⁾ 이 선언중 특히 經濟와 관련된 ①은 經濟人의 相互交流을 내세웠고 ③은 南北間 交易의 門戶를 개방하고 南北間 交易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④는 南北이 다같이 民族經濟의 均衡的 發展으로 民族政策과 統一의 與件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교역증대가 필요하다면 非軍事的 物資交易에 한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北韓과의 共存을 내세운 北方政策은 對共產圈經濟交流擴大의 制約條件을 없앴고 南北經濟交流擴大 및 南北經濟協力時代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의 공산권무역은 80年부터 본격화되고 85年이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87年の 대공산권무역총액은 17억 8천 3백만달러(KOTRA발표)이고 이중 대중공무역총액이 14억 8천 6백만달러이며 나머지는 소련, 동독, 유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과의 교역이다. 88올림픽 후의 國內企業의 對共產圈進出熱氣에 힘입어

4)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1988), pp. 12~15.

대공산권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이나 특히 소·동구무역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主要輸出商品은 섬유, 의류, 신발류, 電子製品 등이고 主要輸入商品은 석탄, 魚類, 化學品 등이다.

共産圈과의 合作投資推進狀況을 보면 中國에 이미 88年 6月 13日 大宇의 冷藏庫生産合作工場이 가동에 들어갔고, 88年 8月에는 大宇電子가 福建省福州市에 냉장고용 콤프레스 合作工場建設契約를 맺었으며, 同國에 삼익피아노가 피아노生産工場設立契約를 체결하였다 한다. 그리고 金星社도 珠海에 家電製品合作工場을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한다. 소련에는 88年 1월에 進道가 최초로 모스크바에 毛皮工場을 건설하기로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다. 헝가리에는 87年 5月 코오통이 신사복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한 이래 경덕상사(양말), 대하섬유(조강복), 기아산업(승용차조립), 세방(관광사업) 등 많은 기업이 合作投資를 합의 내지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三星電子는 88年 9月末 동구권으로는 최초로 헝가리에 칼라TV工場을 합작설립키로 합의하였다 한다. 폴란드에는 한일라켓(스포츠용품), 한국화이버(제조업) 등이 합작을 추진중에 있으며 金星社도 VCR 및 칼라TV合作工場建設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⁵⁾ 그 후에도 經濟人의 相互往來를 통해 많은 프로젝트에 관한 商談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共産圈經濟交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韓·中關係에 있어서 그 조짐은 우리나라의 西海岸開發計劃發表, 中共과의 相互貿易事務所設置合意, 그리고 韓·中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간섭을 배격한다는 의미의 李鵬 中國總理의 발표 등이다. 우리나라는 東歐를 통해 對蘇進出을 시도한 바 있으나 최근 韓·蘇關係改善의 가능성은 소련의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에서 비롯된다. 고르바초프는 8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연설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과의 經濟交流可能性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88年 9月 16日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고르바초프가 아시아·태평양평화제안을 발표한 연설이다. 여기에서 한국과의 經濟關係改善可能性, 시베리아開發을 위한 經濟特區設置可能性을 내세워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련의 對韓態度變化는 韓·蘇間 直交易時代를 열 것으로 전망되고 아울러 시베리아開發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對蘇經濟交流에 있어서는 소련의 貿易制度가 자유무역아닌 計劃貿易이라는 것, 外換管理가 엄격하다는 것, 主要産業이 철저한 計劃管理下에 있어 合作投資의 경우 投資保護가 어렵다는 것 등이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어쨌든 88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우리와 공산권의 기업인, 관

5) 産業研究院(1988), pp.21~22.

리들과의 접촉이 있었고 나아가 헝가리와 무역사무소 상호설치가 이루어졌으며 양국간에 常設代表部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그밖의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계속 무역사무소 상호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23外交宣言후 우리나라의 對共產圈經濟交流은 이상과 같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南北韓經濟關係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78年 6月 23日 南北韓經濟協力推進을 제의했고 1984年 8月 20日에는 北韓側이 동의하는 경우 技術과 物資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1984年 9月 14日 北韓의 對南水害物資提供提議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수락하여 物資를 인수했다. 1984年 10月 12日 한국이 南北經濟會談을 제의했고 北韓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84年 11月 15日부터 1985年 11月 20日에 걸친 기간에 다섯차례의 南北經濟會談이 열렸다. 그러나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긴장관계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7·7宣言과 10·7對北交易關聯措置로 우리의 북한에 대한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었으므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경제교류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10·7 조치에서 정부는 南北韓經濟의 相互補完性을 높여 民族經濟共同體로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國內民間商社의 北韓物資交易許容, 國內民間商社의 北韓物資中繼許容, 北韓原產地表示와 상표부착허용, 直間接交易物資에 대한 관세비부과, 南北經濟人의 상호접촉 및 방문허용, 北韓船籍의 商·魚船入港許容, 南北經濟交流關聯法制定補完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변화에 대응해서 북한의 자세도 바뀌고 있다. 즉 北韓은 日本 및 美國과의 관계개선의사를 표명하면서 中, 蘇의 改革政策을 지지하며 對外開放을 강조하고 있다.

南北韓經濟交流에 대한 南北韓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北韓이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3大原則에 입각한 交流와 合作, 物資交流의 동시실현을 주장하는데 대해 한국은 순수경제적 차원에서 先交流後合作投資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일괄적, 포괄적인 제의를 하는데 대해 한국은 기능적,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다. 셋째, 北韓은 원자재와 원자재, 완제품과 완제품, 농산물과 농산물의 교역을 제의하여 垂直的 交易方式을 거부하고 있다. 네째, 去來方式에서 한국은 國際去來方式을 제의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自主的 交流方式을 제의하고 있다. 우리의 對蘇·東歐 및 中共에 대한 經濟交流擴大가 결국 북한의 開放化를 가능케 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經濟面에서 南北間의 接近, 交流, 同質化로 分斷經濟支援에 의한 單一國民經濟形成을 위해서는 첫째, 南北韓이 다같이 經濟發展에 성공하여 水平貿易에 의

한 相互交流可能性이 커져야 한다. 둘째, 南北韓은 다같이 서로가 同質化 되어가는 方向으로 體制變化를 일으키면서 가능한 最善의 經濟體制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異質經濟의 同質化를 위해 EC와 같은 經濟統合努力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南北 經濟交流과 平和統一에 유리한 方向으로 內外情勢가 바뀌도록 능동적인 立場과 行動을 취해야 할 것이다.

V. 結—東西經濟關係에 對한 期待와 限界

이상에서 東西經濟關係의 推移와 展望, 不振要因과 擴大要因 및 우리나라의 對共產圈經濟關係를 살펴보았는데, 과연 東西經濟關係改善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우선 兩體制가 論理上 東西經濟關係를 통해 共存하면서 영속적인 平和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共產主義의 論理는 資本主義를 단순히 대립되는 異質의인 社會體制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社會로 이행하는 前段階의 過渡的인 社會體制로 간주한다. 단순한 異質的인 社會體制라면 雙方은 접근하여 어느정도 共存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발전되면서 붕괴된 기반위에서 共產主義가 성립된다는 論理에서 본다면 資本主義가 쓰러지지 않고 번영을 지속한다는 것은 共產主義로서는 자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쓰러져야 할 상대가 쓰러지지 않고 번영하는 것을 인정하고 共存을 모색한다는 것은 자기부정 내지 자기기만이 아닐 수 없다.

資本主義는 競爭을 통한 技術革新이나 社會的 富의 擴大를 내포한 社會體制였으므로 많은 矛盾을 노출시키기는 했지만 分配不平等과 같은 矛盾을 완화시키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社會主義는 평등했지만 혁신적인 發展裝置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經濟的 落後를 면치 못하였다. 이 중대한 사실을 인식한 鄧小平, 고르바초프는 教條의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위에서 또는 NEP時代의 레닌이 내세운 創造의 마르크스主義의 교훈을 살려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하고 經濟特區를 설치하며 資本主義的 經營形態를 인정함으로써 經濟的 落後狀態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自己變化를 통해 經濟的 共存 摸索을 하는 共產主義의 戰略을 資本主義指向이나 資本・技術不足을 극복키 위한 一時的 便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共產主義體制維持를 위한 對症療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歷史의 흐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西方側은 그의 優越한 經濟力을 유지하기 위한 市場擴大의 의미를 東西經濟關係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共產國家의 自由化에 의한 對外政策의 變化를 기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은 市場原理에의 依存度를 높이고 資本主義諸國의 經濟力을 이용한다는 것으로써 1920年代의 NEP(新經濟政策)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中國도 현재 시기를 社會主義의 初級段階라고 규정하여 資本主義的 要素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NEP에 의한 經濟活性化에는 약간의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社會主義體制內에 資本主義制度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貧富의 隔差增大, 인플레이션, 倒産, 失業, 腐敗 등 共產主義經濟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았던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둘째, 政治面에서 볼 때 經濟自由化가 진전되면 企業管理者, 科學技術者, 知識人 등 새로운 지도층의 세력이 부상하여 黨政分離에 의한 이데올로기支配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經濟改革은 국민의 공산당지배에 대한 무관심, 불신, 의문을 주장할 지도 모른다. 더우기 共產主義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각종 사실을 은폐, 또는 조작하는데(生産量, 犯罪件數) 이러한 僞情報를 가지고는 經濟改革下의 企業運營이 어렵기 때문에 客觀的 情報가 필요하여 政治的 不利를 무릎쓰고 僞情報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NEP는 共產主義經濟停滯를 타개하는 길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共產主義의 政治的 土臺를 흔들리게 한다. 西方側으로서는 改革派를 적극 지원하여 이데올로기支配力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共產主義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改革路線은 최종적으로 體制에 의해 原點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改革路線의 逆轉도 주장되고 있다.⁸⁾ 歷史的으로는 2步前進을 위한 1步 후퇴를 한다는 Lenin의 NEP政策이 資本主義의 부활이라는 이름아래 스탈린에 의해 단죄되었다. 스탈린을 부정하고,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를 비판하며 레닌으로 되돌아 가려는 고르바초프가 2步前進을 위한 1步後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인지 아니면 體制的 失敗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中國에서도 86年末 民主化를 요구하는 학생데모 이후 胡耀邦 總書記가 물러날 당시 自由化思想에 반대하는 4個原則, 즉 社會主義에의 길, 共產黨의 指導, 無產者 獨裁, 마르크스·레닌主義·毛澤東思想堅持를 재강조하여 政權의 變질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西方側이 공산권의 經濟近代化를 지원하여 政治自由化를 이끌어내는데는 限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6) *News week*, Sep. p.7, 1987.

7) 金河龍(1988).

8) Brezinski I.(1987).

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東西經濟交流과 相互依存의 擴大가 東西間의 安定化와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서로 自國의 生存을 위해 상대국가의 經濟를 필요로하면 할수록 서로가 友好關係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은 상대국뿐 아니라 자기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歴史的 經驗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美國이 第2次大戰時 소련에 대해 110億달러의 군사원조를 하고 루스벨트대통령은 1917년의 美・蘇의 民主主義의 差를 美國 100, 蘇聯 0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美國 60, 蘇聯 40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美・蘇兩體制의 收斂을 예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⁹⁾ 요컨대 그는 兩國의 協力이 전쟁중뿐 아니라 전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지만 전후 소련은 東歐를 지배하여 심각한 冷戰時代로 들어간다. 非스탈린化의 슬로간 밑에서 平和共存, 社會主義로의 다양한 길, 戰爭可避論을 강조한 후르시초프도 헝가리의 自由化要求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백림에 벽을 쌓았으며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다. 70年代 이후 東西和解와 東西經濟交流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한때 東西政治關係를 악화시켰다. 이상과 같이 공산권의 政治나 外交가 반드시 經濟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西方側이 공산권에 經濟力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이 아니라 一定한 조건을 내세워 규제해야 하든가 때에 따라서는 經濟制裁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經濟交流가 공산권의 軍事力을 강화시켜 西方側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東西經濟交流가 단기적으로는 相互補完이 되어 東西經濟發展과 世界經濟政策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共產主義論理에 비추어 볼 때 兩體制의 永續의 共存을 보장할 근거는 없다. 현실적으로도 東西經濟交流에 대한 兩體制의 期待와 성과 사이에는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우기 東西經濟交流擴大에 의한 相互依存擴大가 반드시 東西關係의 安定化와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實利에 입각해서 단기적으로는 東西經濟交流擴大에 힘써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幻想이 아니라 長期的 視野에서 兩體制의 基本的 差異나 長期的 展望에 비추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9) 『日本新防衛論集』.

參 考 文 獻

1. 金河龍, “社會主義初紙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亞細亞研究』 通卷 80 號,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88. 7.
2. “1986~1987年の 東西貿易動向”, 『소·동구무역 조사월보』 88년 1월호.
3.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南北對話 제45호』, 1988. 10.
4. 產業研究院, 『共產圈諸國의 經濟改善과 對外開放』, 1987.
5. 產業研究院, 『北方政策推進現況과 課題』, 1988.
6. 荒川弘, 『世界經濟의 秩序와 과위』, 1983.
7. 『日本新防衛論集』 第15卷 第3號.
8. *News Week*, Sep. 1987.
9. Bergsten, F., R. Keohame and J. Nyc,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World polit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in Bergsten, F. and L. Krause(ed.) 1975.
10. Brezinski, I. “US-SOVIET Relationship: Paradoxes and Prospects,” *Strategic Review*, Spring 1987.
11.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onomic Bulletin for Europe*, Vol. 39, Oct. 1987.